

무지개,
무지개의 마음은...

연초록과 진초록이 어께 견주며 파랗게 파랗게 물들어가는 사이로 노란 빛, 분홍 빛, 붉은 빛...색색의 꽃들이 수를 놓은 축제의 장으로 많은 꽃들이 모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날이라고 날아갈 듯이 좋아합니다. 어린 것, 연한 것, 고물고물한 것들이 그저 사랑스럽고 대견해지는 날. 죽은 듯 딱딱하게 말라붙은 거죽을 뚫고 새파란 이마를 밀어 올리는 꽃들. 아이들의 몸짓이 마치 있들의 몸짓인 양 대견하고 고마워지는 마음으로 무지개 축제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귀여운 몸짓들 아이들에게는 동심을, 우리들에게는 추억을 일깨워주는 무지개, 무지개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말라가는 마음을 다시 적시였습니다.

오월의 아이들이 새삼 못 견디게 예쁘고 대견해지는 건 그 아이들이 우리들의 아이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이라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맑은 날씨를 주셔서 많은 아이들 참석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에게 동심들을
그리고 추억들을 ...

5월 12일 (화)에 늘푸른대학에서 포천 허브랜드 봄철나들이를 가졌다. 함께 갈 수 있는 건강과 시간, 장소 주심에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의 나들이 첫째도 안전 1호차, 2호차, 3호차...150여명의 어르신들과 스태프 가는 도중 오는 도중 감사하는 여행이 되게 하여주심을...자연을 보며 종음을 함께 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여정 속에서 삶의 기쁨 나눌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살짝 살짝 비가 내림에 마음이 불안하다. 타고 가는 선두차 유리창에 빗물이 살짝 내리친다. 점심 식사를 하며 '비야 그쳐라' 마음에 되새긴다. 가끔 살짝 내리는 비는 내리쬐는 햇빛보다는 나은 것 같다. 많은 꽃들 왜들 꽃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다. 향기와 빛깔...풍터기로 심은 꽃들의 조화 우리들의 마음 같다. 어르신들과의 나들이 중에 사진을 찍어 드리며 여러 생각을 해본다.

삶의 흐름대로 거스리지 않고 살아오신 어르신들 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내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 남의 삶이나 내 삶속에 모두 뭔가를 꼭해야한다는 '깊은 때'를



영어예배 5주년을 축하하며



지난 4월 18일 English Ministry가 5주년을 맞았습니다. 영어 활용 능력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 한국 사회이지만 이슬배반적이게도 영어가 모국어이거나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예배드릴 곳을 찾기가 어렵고 또 교회에 속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 듯 합니다. EM은 이런 이유로 외로움에 빠지거나 신앙의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귀중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매우 소중한 사역입니다.

밝은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어린이 같은 세월이 있었고, 또 저 어린이들의 아빠가 되어 어린이날을 맞았었는데... 추억 속의 어린이날이 된 듯 합니다. 즐거웠습니다. 항상 보살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아이들을 바라며 살아야겠다는 우리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편집부〉

〈다함께 가기〉 _ 정신여고3서동진



가정의 달 5월에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태국에서 축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강성민선교사가 바다집시 모겐족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소명2 : 모겐족의 월드컵>이 그것입니다.

어려서 축구 선동으로 불렸으며, 개인기가 너무 좋아 오히려 축구팀에서 일단을 거절당한 강선교사는 축구모기 기술로 진로를 바꾸어 축구모기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오른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던 그가 1987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1995년에 태국에 들어가 축구를 가르치며 예수님을 전하는 '축구 전도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지역 라오섬에서 국적도 없이 살아가는 300여명의 작은 부족인 모겐족의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게 됩니다. 아이들의 삶의 환경은 열악했지만 축구화도 없고 그 단단한 축구공을 차면서도, 불발터위에서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도 아이들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체계적인 훈련과 강도 높은 지옥훈련을 짜증이나 불평하는 일 없이 잘 견뎌낸 모겐족 아이들은 축구전사로 거듭나게 되고 마침내 초청팀 자격으로 태국 남부 유소년축구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맨발로 말입니다. 경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제 가슴을 울린 건 경기전날 강선교사가 아이들에게 배운 세족식이었습니다. 마치 2000년전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 감격스러워 연신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먼 타국에서 땀비늘에 비오듯 땀흘리며 아이들에게 열심히 축구를 가르치는 강선교사님을 보며 소명이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농치면 정말 아쉬울 기대 이상의 은혜로운 영화입니다.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박윤정 기자〉

[오늘의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_ 요일 3 : 3

통 권 제 264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0년 5월 16일



어머니!
이제 그만 눈물을 닦으세요

지극히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화창한 날씨였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업무도 경쾌하게 끝냈습니다. 때마침 임신한 친구가 저녁을 산다기에 못이기는 척하며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급음식이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다가 돌이 씹혔습니다.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돌을 골라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왼쪽 어금니 반쪽 이었습니다. 친구 몰래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경자년 쥐띠이니까 우리 나이로 지천명이군요.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항상 굵어진 허리로 징검장 걸으시다가도 허리를 펴시며 "아이고 아이고....."를 연발하시는 어머니, 제 아들놈이 어렸을 때 어머니 입술을 보시고 오물오물 어린 아기 입갈라고 했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유독 고생을 많이 하여 빨리 늙으셨습니다. 고된 일에 몸이 견디지 못했던 거지요. 일찍 빠진 치아, 일찍 썩 머리, 퇴행성관절염, 막힌 눈물샘, 유전적으로 굵어진 허리.....,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저를 키우셨습니다.

농사일 고되더라도 "도현이네 고추는 별래가 먹었네. 해도 가을에 가뭄야 알지 하였던 도현이네 어머니처럼 우리 어머니도 자식만 믿고 사는 소였었습니다. 어머니는 늙으셨고 귀가 들리지 않은 아버지와 함께 고향에서 사셨습니다.

그 자식은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임신도 못하고 채물도 모으지 못하고 겉에서 호의호식 시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겨우 제 밥벌이나 하고 제 자식이나 전사하는데 그 자식도 오늘은 이빨이 빠졌습니다. 어머님께 좀 잡고

돌아다니실 옷도 한번 못 사드렸는데, 연하고 부드러운 고기 한 번 배불리 대접하지 못하였는데, 아픈 다리 고통을 멎게 하기 위해 진통제 하나 제대로 놓아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 저는 당신의 손주녀석이 말썽을 피울 때 "제 녀석은 더 그래놓고 아들만 탓하느냐"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왜 섭섭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를 그렇게 힘들여 키워 주셨는데 저 혼자 커온 양 어머니의 아픈 허리와 아픈 다리는 한 번도 주물러 드리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학교 다닐 때 한복에 쪽진 우리어머니가 더 아름다운 줄을 모르고 양장에 핸드백 들고 다닌 친구 어머니만 부러워했을까요?

하나님! 오른쪽 어금니도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치아가 없이 틀니를 하고 진지를 드시는 어머니의 아픔을 느껴보도록 말입니다. 골뎛 삼키거나 오물오물해서 삼켜야 했던 어머니의 고통을 알기 위해서요, 허리가 굽어 새우잠을 자야 하는 어머니의 고통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고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고통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귀는 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야 철이 들어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그 말을 듣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해 주십시오.

어머니! 아프시더라도 오래사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보다 좋은 것은 없지만 어머니가 안 계시면 이 세상에 온전히 저를 사랑해주실 분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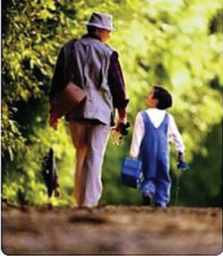
〈편집장 하태원〉

함
즐
함
울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로
멤
나
무



|
함
께
|

여호계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145:18)

하나님 없이 많은 일을 하기 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강한 자가 되기 보다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염혜숙 기자〉

선교연속강좌 / 지역교회의 선교참여	2면
호산나 찬양대 / 간중/ 청소년의 날	3면
무지개전지 / 늘푸른대학 / 영어예배5주년	4면

편집부 기자모집안내

본 편집부에서는 <함즐함울>에 봉사할 기자를 모집합니다. 사명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으며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분들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분야 : 취재, 사진, 일러스트, 카툰. * 연락처: 편집장-하태원 (019-313-3073)

교회 홈페이지 봉사자 모집안내

교회 홈페이지 관리에 동참하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자격: 주님의교회 등록교우 / 분야: HTML편집 및 간단한 그래픽 디자인 담당: 교회 각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 * 연락처: 홈페이지 관리팀 남성집 집사(010-8892-3114) Email: webmaster@pcltv.org

지역교회의 선교참여

남정우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어느 해인가 마을에서 작은 배 한척으로 시작된 구호소가 구호활동의 소중함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과 호응으로 인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규모가 커지자 구호소는 어느덧 사교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인명구조활동에 대한 사명의식이 희미해져가는 가운데 불필요한 규정들은 늘어만 가고, 과거 구조활동에 대한 사진들은 구호소 장식품처럼 늘어갔습니다. 심지어는 구조활동을 위한 구조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정작 자신들은 구조활동에서 멀어져갔습니다. 문제의식을 느낀 몇몇의 사람들은 또 다른 구호소를 개척했지만, 이 역시도 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마을에는 사교장으로 변해버린 수많은 구호소들이 즐겁게 생겨났지만, 정작 바다에 빠진 한 생명을 구원하는 구호소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예화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잊고 변질되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의 정체성을 늘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첫 번째 정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의 말입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라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교회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몸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이시며,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선교입니다. 에밀부르너는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고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입니다. 여전히 선교에 대한 오해가 선교의 장에 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선교에 대한 오해

(1) **선교는 교회의 여러 기능 중의 하나이다.** 예배는 선교 지향적 예배가 되어야 하며, 교육, 봉사, 친교도 결국 선교를 지향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여러 기능 중의 하나가 아니라 모든 활동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2)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다.** 선교는 선교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교회의 지체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3) **선교는 선교위원회가 하는 일이다.** 선교는 교회 안에서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오해입니다. 선교는 교회에 발을 내딛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참여할 수 있는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 **초기 한국장로교회의 모습** 한국 장로교회는 초창기부터 선교하는 교회로의 전통을 세워왔습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선교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일념아래 중요한 일을 기념하여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1907년 독노회기념으로 이기풍 선교사를 제주도에도 파송하였고, 1912년에는 총회조직기념으로 중국산둥성에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신생 교회 때부터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였기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크게 부흥하고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장로교인은 1200만 정도가 있는데 그 중 800만이 한국장로교회 교인들입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장로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초창기부터 선교에 힘쓰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 **선교를 반대하는 이유** 자기지역 우선주의는 늘 선교를 반대하는 이유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많은 분들은 자기나라와 자기민족에 더 이상 선교할 곳이 없어서 오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도처에 교회가 있다는 생각도 선교를 머뭇거리게 합니다. 한국에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해서 세계 모든 곳에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착각입니다. 세계인구 68억 중 23억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아직도 20억의 영혼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재료가 된다. "Good - God = 0" 아무것도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것이 된다. "0 + God = Good"

1972년 윌리엄케리는 인도를 가슴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보라는 말입니다. 윌리엄케리는 인도의 수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선교에 그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있기에 오늘의 영국이 있고, 오늘의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에 참여하는 한 사람을 위대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위대하게 하시고, 그 민족을 위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선교연속강좌를 시작하며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이러한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학자들 간의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도는 동일 문화권 안에서의 복음전파이며 선교는 문화권이 다른 곳에서의 복음전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이지만 문화적 차이가있는 군대에서 복음전파활동을 하는 것을 “군전도”라고 하지 않고 “군선교”라고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 관점으로 선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7주간의 선교연속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하여 성도님들의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선교 동참의 귀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배현성 목사)

5.12(수) 지역교회의 선교참여

— 남정우 교수 (장신대 교수)

5.19(수) 세계선교의 현황

— 신방현 목사 (총회세계선교부 총무)

5.26(수) 지구화시대의 선교

— 박성원 교수 (영남신대 석좌교수)

6.2(수) 선교와 문화

— 김영동 교수 (장신대 교수)

6.9(수) 다문화가정 선교

— 윤대진 소장 (하남비전센터소장)

6.16(수) 선교의 성서적 기초

— 변창욱 교수 (장신대 교수)

6.23(수) 동유럽선교현황보고

— 정재화 선교사 (주님의교회 헝가리 파송선교사)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찬양하는 “호산나”

개나라가 노랗게 피고 진달래가 빨간 수줍음을 드러낼 때에도, 목련이 하얗게 피었던 지난 봄에도, 항상 꽃보다 아름다운 소리로 본 교회를 향기롭게 한 호산나 성가대... 새벽 5시부터 일어난 대원들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리며 교회를 향한다. 아직은 어둠이 사라지지 않았다. 적막한 교회가 호산나 찬송에 잠을 깬다. “호산나,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외침이 되고자 20여년 전 1부 찬양대는 호산나로 명명했다. 지난 20여년간 찬양대는 양절로 하나님 중심에 서서 기쁜 찬양을 드리길 소망하며 예배를 드려왔다. 초대교회의 성도의 인내와 열정처럼 원근각지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을 깨고 첫 찬양을 드리고자 노력해왔다. 호산나 찬양대원들의 봉사정신은 ‘먼저 인사하기’에서부터 나타난다. 봉사대원들의 가운을 챙기기, 악보 배부, 식사준비와 음료를 제공하는 한결같은 일련의 과정



들은 섬김과 배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우리 찬양대의 특성은 대원 중 2/3이 찬양대를 한결같이 지킨 장수대원이라 하겠다. 그래서 박영주 지휘자의 지도하에 하나되는 일에는 달인에 이른 수준이라고 할 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며

(목요성경통독 장혜정 권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를 존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대적 마귀가 우는 자라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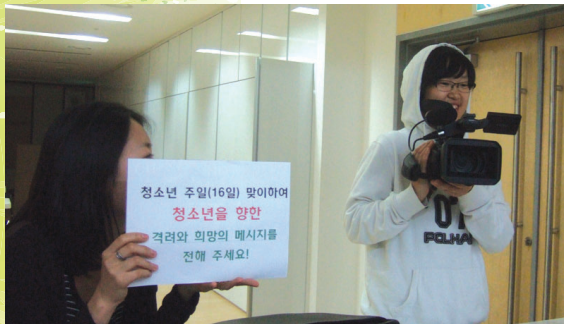
저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해주세요

(유혜용 집사)



매서웠던 동장군은 물러갔지만, 그래도 쌀쌀한 2월의 사순절 첫 월요일! 어젯밤 2시간이나 잤을까, 새벽5시에 본당에 도착하니 대령스피커에서 잔잔하게 성가가 흐르는 가운데, 벌써부터 와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보니 더욱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항상 바라보는 대상이었던 무대(?)에 올라가 앉으니 더더욱 긴장감으로 아득하기만 하고, 벌써부터 목이 마르는 것 같고, 눈을 감고 기도를 했다.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나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전 앵무새도 아니고, 아나운서도 아니지만,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해 저분들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깨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지 막상 읽기시작하자 막연했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어느새 안정과 여유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지난주 금요일은 오래전부터 약속된 1박2일의 부산여행가는 날이었다. 남편친구들과 부인들이 원성이 높았다. 하지만 나는 갈 수가 없었다. 비록 사순절이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나는 나의 맡은 일에 집중하고, 또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지라도 능히 이길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지난 사순절 절기에 새벽 성경통독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은 저에게는 넘치는 축복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통독을 하기로 되어있던 권사님이 장기간 미국에 가게 되어 대신 성경통독을 하게 되었는데 진정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20분 내에 주어진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소리 내어 읽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는 마음이 쪼리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회개기도가 절로 나오고, 시름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있겠다. 매주일 찬양대의 일과는 오전 6시부터 시작되어, 성전 지하연습실에서 오전 7시 20분까지 주일찬양을 정성껏 준비한다. 1부 예배 후 다음 주일을 위해서도 1시간의 찬양연습시간을 갖는다. 특별히, 호산나찬양대는 토요일에도 모여 1-2시간 음악기초 발생법과 연습을 병행하여 보강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 찬양대원의 당면과제는 ‘대원 출석 120명 확보’이다. 크리스마스 이브 칸타타를 앞두고 있어 더욱 그렇다. 현재 출석대원 100명으로(소프라노 30, 알토 30, 베이스 25, 테너 15명), 약 20명이 더 충원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음악달란트 있는 분, 음악에 뜻이 있는 분, 찬양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분 모두를 초대한다. 호산나 찬양대는 앞으로 대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련회, 산행을 봄가을로 실시하여 대원들의 건강과 친교를 다지도록 하겠다. <1부/호산나 찬양대 신광이 안수집사>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눌린 자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자유함을 주고 세상만물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변화됨을 느낍니다.

모든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하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말씀 앞에 나의 생각, 의지, 이성, 경험, 판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번 통독시간을 통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다시한번 다짐해 봅니다.

말씀을 모두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회복되어지길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처럼의 하나님과 나와의 은혜의 시간을 다른 일로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사순절내내 우리 통독자 6명은 잘 해야겠다는 중압감과 긴장감 속에서도 은혜와 감사와 회개의 경험을 서로 간증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였던것 같다. 다른 교회에서 흔치않았으며, 우리 교회에서도 첫시도였다는 성경통독예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가길 바라며 다음차레인 구약통독에서도 어떤 성도분에게 기회가 주어질 지 모르나, 절대 사양치 마시길 권하고 싶다. 성경통독을 위해 30~40회 반복해서 연습했던 그 시간들이 성경의 역사를 눈 뜨게 했고 사순절내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들이었으며 진정으로 최고의 은혜의 시간들이었다.

아름답게 피게 하소서. 언제나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과의 인연을 이어가시기를 늘 갈망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랑 나누며 행복 가득한 좋은 청소년 시절을 보내기를 기도 드립니다.

(신형섭 기자)